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h1>새고려신문</h1>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8년 2월 2일(금) ..(음력 12월 17일).. Пятница 2 февраля 2018г. № 4(116771)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지난 30일(화)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사할린주문화유산보존부와 블라디보스토크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총령사관의 주최로 조선공화국의 현대미술 전람회가 열렸다. (이예식기자 촬영)

## 단신

###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 대표선수 7명 사할린에서 훈련

러시아 대표선수 7명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할린의 우수한 스포츠장소에서 훈련 중에 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극동의 풍토 적응을 위해 가장 먼저 스키 선수 알리사 잠발로와가 왔고 나머지 6명의 선수들은 스키-크로스(자유형)에서 출전할 계획으로 사할린에서 훈련 중이다. 2월 3일 12시에 이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공원 앞마당에서 진행될 <정치 없는 깨끗한 스포츠>행사에 참가할 예정으로 행사 조직위원회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에 주민들을 초청하며 평창으로 떠날 러시아 대표선수들과 사진 촬영의 기회도 주어진다고 전했다.

### 사할린 수산업체, 명태 4만340톤 어획으로 극동지역에서 선두

연초부터 사할린 수산업협조합의 업체들의 명태 어획량이 4만340톤에 달했다. 현재 명태잡이에는 극동의 6개 지역이 어로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총 어획량은 17만 톤이다. 파벨 콜로투쉬킨 사할린 수산업협조합의 부회장은 조합의 업체들이 명태잡이에 대형 어선 32척으로 어획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중 <필렌가>회사의 어선들이 많은 어획량으로 선두에 섰다고 전했다.

### 2017년, 쿠릴개발 프로젝트에 계획보다 2배 투자

사할린주 경제개발부 정보가 따르면 예산 외 투자금 11억 루블리로 사업 계획이 정해졌는데 실제로 2018년 초에 21억9천만 루블리(198.9%)의 투자금이 조달되었다. 부분적으로 이 자금은 주로 수산업체들의 선박의 현대화와 복구, 고등어잡이를 위한 어선 매입, 양어장 건설, 수산물 가공 공장 건설, 장비 구입 등에 투자되었다.

모든 사업은 쿠릴개발 특별연방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나 2017년에 연방예산은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지 않았고 사할린의 투자금 조성으로 50억 루블리(계획의 96.5%)가 책정되었다.

### 태권도 선수 8명 극동지역 대표팀으로 선정

캄차트카주 엘리조위예에서 극동연방구 올림픽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진행되었다. 이에 사할린주, 캄차트카, 프리모리예, 하바롭스크 변경, 사하 공화국(야쿠치아) 15-17세 연령의 대표선수들이 출전했다.

사할린대표팀은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와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고 사할린주태권도협회 김춘하 회장이 알렸다.

선수권대회에서는 장형철, 로만 일린, 옌게니 마마예브, 세르게이 노브고로도브, 게오르기 보로비코프와 블라지슬라브 텐(유즈노사할린스크), 드미트리 발코브(오하), 다리야 포포와(코르사코브), 알렉산드라 야코블레와(네벨스크)가 우승했고 이들은 극동연방구 대표팀 선수로 선발돼 2월에 체복사리시에서 진행될 러시아 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주스포츠청소년부 홍보실이 전했다.

### 사할린주에서 3년간 130개 시설대상 공사 계획

#### 트루트네브 부총리 사할린 방문

지난 30일(화) 사할린을 방문한 러시아 연방정부 부총리겸 러시아 연방구 대통령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네브는 31일 여러 대상들을 돌아보고 몇 번의 회의를 연 후 주내 언론인들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요 회의 중 하나는 지역에서 사회개발계획 실행에 대한 과제였다.

사할린주정부 제안으로 3년간 주내에 130여 개 주요 시설들을 대상으로 공사를 계획이다. 총 투자액은 250여억 루블리로 연방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할 전망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새 학교 14곳 (6곳 - 쿠릴열도, 그리고 코르사코브, 스미르니흐, 노글리키, 마카로브, 툰고르촌, 키롭스코예촌, 유즈노사할린스크시/달네예와 루고워예)를 건축할 예정이고 교육기관의 보조 건물도 건설할 계획이다.

보건 분야에서 개발계획으로는 세웨로쿠릴스크에 새 병원을 설립, 남쿠릴에는 의료기관을 개건하고 쿠나쉬르섬에서는 조산원을 개설할 계획이다.

문화, 스포츠, 주택공공경리, 동력 및 운송 분야에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공사를 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사할린주에서 편안한 삶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렇게 하여야만 사할린주의 효과적인 종합적 개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마코는 지적했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 유즈노사할린스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대 예술 전람회 열려

지난 30일(화)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사할린주문화유산보존부와 블라디보스토크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령사관의 주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대 미술 전람회가 열렸다.

이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석철 총령사를 비롯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령사관 대표단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이날 개막식 사할린으로 파견 나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들이 많이 방문했다.

총령사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정일 탄생 76주년에 즈음하여 개최된 이번 전람회에는 사진, 도서, 수예작품과 조개껍질 등으로 만든 작품 약 100점이 출품되었다.

전람회 개막에 조석철 총령사 외에 사할린주문화부 올라 니콜리나 차관, 러시아외무성 유즈노사할린스크대표 블라지미르 노소브, 사할린주미술박물관 알렉산드르 부리카 관장이 축하했다.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더욱 더 문화교류가 확대되길 기원했다.

주 미술박물관 하이 올라 총연구전문가는 전람회 작품을 소개하고 조선공화국 측에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다. 개막식 순서에 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들은 김정일 사진에 꽃다발 헌화식을 가졌다.

이번 전람회 개장기간은 2월 17일까지라고 박물관 측이 전했다. 한편 조선공화국의 전시회는 주미술박물관에서 2016년에 개최를 마지막으로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전람회다.

(배순신기자)

<p>새고려신문</p>	<h2>2018년 신문주문</h2>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p> <p>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p> <p>(본사 편집부)</p>		

# 고려인의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을 하도록 노력

## 공주대학교 재외한인문화연구소 소장 김영미 교수와의 인터뷰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5일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공주대학교 재외한인문화연구소(소장 김영미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조명희와 선봉, 연해주 한인문단>을 주제로 국제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공주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순천대학교 등의 교수들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이번 세미나 조직자로 나선 공주대학교 김영미 교수와 만나 사할린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한 동기와 재외한인문화연구소의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 우선 사할린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한 동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할린 한인의 디아스포라는 여타 CIS 고려인 사회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따라서 사할린 한인문학 또한 여타 지역 고려인 문학과는 전개 양상이나 문학적 성과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곳의 세르게이 양 시인이 지적인 것처럼, 사할린 한인문단은 연해주 시절의 고려인 문단과 교류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할린 한인문학 또한 고려인문학이고, 넓은 의미에서 한국문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할린 한인문학이 고려인 문단의 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조명희와 영향관계에 있는지, <선봉>과는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여타 고려인문학과는 다른 색채를 드러내는 사할린 한인문학을 조명하기 위해 이번 콜로키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할린 한인문학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자 하는 의도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사할린 한인문학이 고려인 문학과 맺고 있는 연결점이나 상관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지에서 사할린 한인 작가나 시인, 연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소중한 기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고려인문학 연구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다면요?

- 고려인문학 연구사업은 고려인과 관련

된 문학을 중심으로 한 문화에 대한 자료 구축과 연구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이를 CIS 고려인 문화지형도 사업으로 지칭해 보았습니다.

이국에서 사라져가는 고려인의 문화유산을 모으고 정리함으로써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를 통하여 이후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여러 자료들이 많이 소실된 상황이라서 안타까움이 없지 않습디만,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이제나마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연구팀도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 사할린 한인문학을 한국에 알리고자 하는 사업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콜로키움에서 만난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았습니다. 사할린 한인문학은 여타 고려인 문학과 또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할린 한인문학은 한국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사적 단절과 언어적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사할린의 한인 작가나 시인들의 문학적 성과를 한국에 알려야 할 당위성을 재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할린 한인문학은 소중한 우리의 문학적 자산이고, 이를 한국에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국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작업이기도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는 고려인문화 연구사업의 하나로 (사)한민족문화교류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고려인 작가들의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 출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할린 방문 때 이곳의 저명한 시인 세르게이 양 선생을 만나 사할린 한인문단의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 지금 세르게이 양 시인의 시집을 한국어로 번역 중이며, 번역이 끝나는 대로 출판할 계획입니다. 새고려신문 사에서도 좋은 작품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할린에서 문학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한국문단에 알리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 드리고 재외한인문화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이번 콜로키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사할린에서 좋은 기억들을 갖고 돌아갑니다. 또한 앞으로 학술적으로도 수행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고려신문>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 우선 과제는 1세 돌봄, 한인역사 보존 작업, 젊은 세대 동포정체성 확립

## 지구촌동포연대 최상구 사무국장과와의 인터뷰

<세상에 하나 뿐인 달력>을 전 달하고 해마다 사할린 지방을 돌아 다니며 현지 동포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단이 이번에 일주일간 사할린에서 보낸 후 1월 31일 귀국했다. 한국으로 떠날 무렵에 본사 배순신 기자는 킨의 최상구 사무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부탁했다.

- 사할린을 여러 번 다녀가시고 최근 4-5년은 해마다 찾아오시고 하는데 이번 방문 소감은 어떠셨는지요? 만족하셨는지요?

- 항상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동포들 덕에 정든 집에 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강기순 어머니가 꼭 안아주시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포자르스코에 도로 간판도 설치되고, 문화센터에 전시물도 새로 정비되었고 이예식 기자님 사진도 걸리는 등 달라진 게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작년 새로이 시작한 박순옥 한인회 회장님의 노력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 킨은 사할린한인 문제를 잘 알고 오래전부터 협력하고 있는 한국 민간단체입니다. 사무국장님 보시기에는 사할린한인 관련 우선 과제가 무엇입니까?

-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계시는 1세분들에 대한 돌봄사업, 한인의 역사를 보존하는 작업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동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입니다. 사할린 현지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시설 논의가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한인사회가 지혜를 모아 사업을 펼쳐나가면 좋겠습니다. 동포사회가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한다면 모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카로브박물관에 많은 한인사진들이 있는 것에 감명받았습니다. 고영순 마카로브한인회

회장님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인의 유품을 태우는 풍습 때문에 사할린한인들의 귀중한 역사적 자료들이 사라지는 걸 종종 들었는데, 한인사회가 이런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캠프사업 등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이주 역사를 알아가는 기회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인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시작한다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이 많이 기대됩니다.

- 사할린과 관련 앞으로의 계획은요?

사할린 한인의 역사보존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등 없어지는 자료들을 우선 디지털화하여 영구보존하는 방식들을 모색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2019년 대한민국 수립 10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온 동포들은 국권을 상실한 시기에 국가가 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따뜻하게 국가가 품어야 할 때입니다. 작년 대통령의 블라디보스톡 감담회에 이어 실질적인 정책들을 기대해봅니다.

- 동포들을 많이 염려하시고 사할린한인단체 활동에 크게 협력해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이 모 저 모

## 장애아들, 유즈노사할린스크 알파인 스키 경기에 참가

1월 27일 러시아 안전문화의 해를 기념하여 사할린의 파르코와야 산에서 알파인 스키와 스노우보드 경기가 개최되었다.

지난 토요일 알파인 스키 및 스노우보드 스포츠학교의 체육문화 적응반 학생들은 올해 첫 경기를 시작했다.

경기에는 근골격계, 청각, 시각 및 지적 장애를 가진 선수 23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두 노선에서 경기를 치렀다. 러시아 비상사태성 사할린관리국 직원들은 경기 결과 모든 참가자들에게 메달과 감사장을 수여하며 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주스포츠부 홍보실은 전했다.

## 어린이들, 장애인들, 유즈노사할린스크 알파인 스키 경기에 참가

27 января на горе Парковой прошл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и сноуборду, посвященные Году культу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воспитанники отделения адаптивной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по гор-

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и сноуборду провели первые старты в новом году.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3 спортсмена с нарушением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слуха, зрения и с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ми нарушениями.

Дети стартовали на двух трассах. По итогам турнира сотрудники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благодарили ребят с успешными стартами и вручили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медали и грамоты,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 사할린주민,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리 75주년 기념 강연회에 초대

2월 2일은 스탈린그라드에서 파시스트군을 섬멸시키고 승리를 거둔 지 75주년을 기념하는 날로서 <포베다(승리)>기념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강연이 진행된다.

1.<스탈린그라드 트렉터 공장 - 모두 돌파구가 되었다.> 11시와 15시

2.<콜린게르 알렉산드르 이즈가이노비츠 - 스탈린그라드 전투 참전용사> 14시와 16시

3.<스탈린그라드 전투 - 20세기 칸> 17시  
러시아 역사상 대단히 중요하고 전투상 격렬한 전투의 영광을 거둔 사건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스탈린그라드 전투(1942년 7월 17일 - 1943년 2월 2일)이다. 대조국 전쟁의 규모상 대대적인 전투가 불가강가에서 1942년 하반기에 전개되었다. 전투상 별도

의 단계들에 양측의 200만여 명이 참전했고 3만여 대 무기, 비행기 및 탱크 각각 2000여 대가 동원되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은 동부전선에 집중 공격하느라 병력의 4분의 1을 잃었다. 전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부상을 입은 군사들과 장교들은 150만여 명에 달했다.

##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лекции, посвященные 75-летию победы в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битве

2 февраля в день празднования 75-летия разгрома фашистских войск под Сталинградом в ММК "Победа" пройдет лекция:

"Сталинградский тракторный завод — все на прорыв" в 11:00 и 15:00;

"Коллинге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Изгайнович — участник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битвы" в 14:00 и 16:00;

"Сталинградская битва — Канны XX века" в 17:00.

В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и есть события, золотом горящие на скрижалях её ратной славы. И одно из них — Сталинградская битва (17 июля 1942 — 2 февраля 1943 гг.). Гигантское по масштабам сражение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развернулось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1942 года на берегах Волги. На отдельных этапах в нём с обеих сторон участвовало более 2 млн человек, около 30 тыс. орудий, более 2 тыс. самолётов и такое же количество танков.

(8면에 계속)

# 사할린한인회 현황 파악, 지방 방문, 달력 전달

## 지구촌동포연대와 함께 프로나이스크와 마카로브 방문

계획대로 1월 25일 사할린에 도착해야 했던 KIN(지구촌동포연대)이 눈보라로 인한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다음 날 아침 7시 반에야 사할린을 찾았다.

잘 알다시피 지구촌동포연대는 사할린한인들을 위해 이미 5년째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제작했다. 이번 KIN 대표단은 4명으로 구성되었다. KIN의 배덕호 대표, 최상구 사무국장, 구태희 활동가와 김지운 부산민예총 감독이다.

대표단은 원래 사할린 여러 지방을 다녀갈 계획이었지만 눈도 많이 내렸고 일부 외곽 도로가 닫혀있었기 때문에 네헬스크, 스미르니흐 등지 방문은 취소해야만 했다.

사할린에 있는 동안 KIN 대표단은 한인문화센터를 찾아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을 비롯해 김홍지 주노인회 회장, 박경춘 주이산가족협회 부회장 등과 만나 여러 문제를 논의하고 새고려신문 사에서는 신문사 형태를 파악하고 동포사회계 상황도 알아보았다. 그의 한국 대표단은 우리말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고 사할린 국립대 한국어과장 임 엘위라 교수와 사할린역사문서보관소 연구원 진 율리아 박사와 만남을 가졌다. 또한 김홍지 회장이 수행하여 흡스크, 프라우다촌, 아나와를 방문하고 현지 한인회 관계자와 1세대들을 모신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달력 전달식을 가졌다.

1월 29일 월요일 아침 9시 대표단을 김홍지 주노인회 회장의 수행으로 프로나이스크 쪽으로 출발했다. KIN 대표단과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전상봉 군과 필자가 먼 길을 함께 했다.

KIN 측에서 전상봉 청년을 소개하면서 그가 사할린한인 3세 주제로 논문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필자와 바로 옆자리에 앉은 부산 총각은 2년 전에 사할린국립대에서 1년 러시아어학연수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러시아어 발음, 억양도 괜찮고 구사력도 좋았다.

우리는 사할린주한인회의 봉고차로 움직였다. 하얀 눈이 덮인 땅과 강, 바다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김지운 감독은 겨울의 사할린 풍경을 담기 위해 틈틈이 비디오를 찍었다.

사할린 북쪽에서 남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차들은 거의 모두가 브즈모리에촌에서 잠깐 휴식을 취한다. 11시가 조금 넘어 우리도 이곳에서 잠깐 내려 커피를 마시고 다시 프로나이스크 쪽으로 달렸다.

우리의 첫 목적지는 프로나이스크구역 웨스토크 부락이었다. 김홍지 회장은 정현정 웨스토크한인회 회장과 계속 전화 통화를 취했다. 평일이라 낮에 사람들이 모이기 어렵다며 정 회장이 자기 택으로 초대한다고 김 회장은 전했다.

13시 20분경 웨스토크 부락에 도착하자 부락 입구에서 정현정 회장이 마중나와 자택까지 차로 안내해주었다.

집에서는 강기순 할머니(86세)를 비롯해 1세, 2세의 친척 여성분들이 기다리셨다. 우리는 반가이 인사를 나누었다. 최상구

사무국장과 필자에게는 안면이 있는 분들로 필자가 KIN 대표단과 3년 전에 프로나이스크여행을 할 때 웨스토크에서 일부 만났던 분들이었다.

정 회장의 부인 최연옥 씨는 이날 우리를 위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 상을 차려놓았다. 사할린의 자연환경을 소개하는 김, 고사리, 물고기 등등 모든 음식들이 입맛에 맞아 밥 한 그릇을 푹딱해치웠다.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달력 및 선물 전달에 나섰다.

지방한인회들은 지구촌동포연대가 제작한 벽달력을 이미 받았지만 이날 최상구 사무국장은 같은 디자인의 탁상달력을 강기순 할머니께 전달했다.

강기순 할머니는 한국에서 오신 이야기, 아이들 때문에 한국에 귀국하지 않은 이유 등을 이야기하며 나이 들수록 병이 많아진다고 하소연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도 약 20년 지났고 미혼의 딸 둘(원래 자녀 2남4녀)과 함께 지내는 강 할머니는 지금도 발을 가꾸고 있다고 한다. 물론 힘든 일을 하지 못하지만... 할머니의 삶의 기쁨은 8명의 손자와 11명의 증손자들이라고 했다. 한국도 4번 다녀왔으며 한국 적십자사의 모국프로그램으로 가보고 싶지만 몸이 불편해서 못가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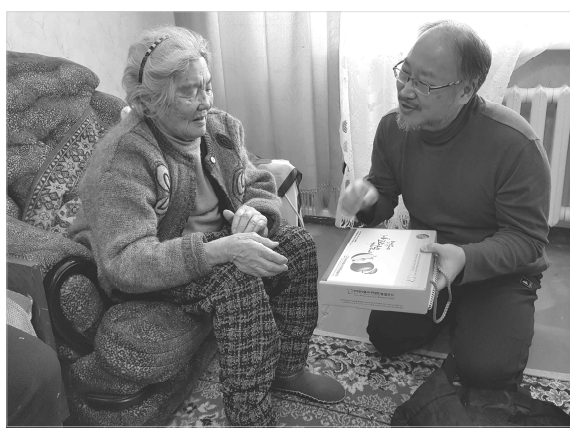
정현정 회장은 '꼭 가볼 때가 있어' 하면서 우리 팀을 와흐루세브촌에 박경희 할머니(95세)택으로 인도했다. 와흐루세브촌은 웨스토크에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였다.

박 할머니는 웨스토크, 와흐루세브에서는 연세가 가장 많다. KIN 대표단과 필자는 3년 전에도 박 할머니를 찾아본 적이 있다. 자그만한 키에 허리가 많이 구부러진 모습은 3년 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박 할머니는 정 회장을 대단히 반가이 맞이하며 손을 잡고 오래 동안 놓지 않았다. KIN의 배덕호 대표, 최상구 사무국장, 구태희 사회활동가에게도 따듯이 포옹해 주었다. 때마침 할머니의 장남이 찾아왔으나 정 회장의 사정으로 오래는 못지 못했다.

박 할머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렷한 기억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감동이었고 사할린 한인 1세대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왔는지를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 중앙에서 떨어진 지방이라 외부 손님들이 잘 찾지 않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할머니께는 이 만남이 아주 소중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현정 회장 택으로 돌아가서 차를 마신 후 프로나이스크로 떠났다.

프로나이스크에서 우리는 안경열 프로나이스크 한인회 회장과 만났다. 우선 그가 소개한 민박집으로 들렀다. 다음 약속시간에 맞추어 <세웨트>호텔 레스토랑으로 움직였다. 여기에서 진경



자(82세), 이옥자(75세), 강경자(75세) 할머니들과 이갑춘 한인회 부회장(차기 회장)과 안경열 회장과 함께 자리를 했다. 안 회장은 프로나이스크에 동포 1세는 30명 정도라고 했다.

이날 만난 어르신들 세 분 중에서 3년 전에 진경자 할머니를 취재한 적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도 역시 어르신들의 살아온 얘기를 나누었다. 모두가 공통점이 있었다. 15-16세에 일찍이 결혼하고, 남편과의 나이 차이(6년, 11년 등)가 있고, 조선학교에서 잠시 공부한 적이 있었고 아이들 키우라, 가정을 이끌어가라 힘겹게 노력해오셨다는 이야기였다.

따뜻한 포옹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9시반쯤 마카로브로 출발했다. 원래 일정에는 레오니도워 한인학살추념비와 스미르니흐 방문이 있었는데 이날 오후 5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우리말방송국 인터뷰가 잡혀 있어서 시간상으로 북쪽지방 일정을 취소했다.

마카로브로 이동 중에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 차 앞에 시야가 가려져 또다시 눈보라가 칠까봐 한국팀은 걱정했으나 10분간 이런 바람 속을 달리다 보니 하늘이 맑아졌다.

11시 약속 시간에 맞춰 마카로브 향토박물관을 찾았다. 여기

에서 박물관 관장이자 마카로브시의회의원 고영순 마카로브 한인회 회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를 먼저 마중나온 직원인 엘레나는 깜짝 놀라며 "왜 남자분 이렇게 많나?!"라며 물었다. 방문단은 운전 기사를 포함해 남자 7명에 필자가 유일한 여자였다.

KIN 관계자들을 잘 아는 고영순 관장은 모두를 반가이 맞이하며 일단 엘레나 직원의 안내로 박물관을 견학했다. 전문가의 설명 덕에 마카로브지역의 역사가 뚜렷이 그려졌다. 이때 전상봉 군이 통역을 하게 되었다. 사실 박물관이 설립된 지는 2년 반밖에 되지 않았으나 석기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반영하는 마카로브박물관의 소장품들은 꽤 많았다.

마카로브 시장은 박물관 설립에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영순 한인회 회장에게 맡아달라는 설득을 오랫동안 했다고 한다.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이 선택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인들의 모습과 흔적이 드러나 있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지원을 받아 앞으로는 한인 전시실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고영순 관장은 박물관에서 출판한 <시리토루 종결 협약>책을 한국대표단에 선사하고 최상구 사무국장은 마카로브 한인회장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음력 달력, 사할린 한인 대상으로 하는 김지연 작가의 사진집과 한국에서 준비해온 선물을 전달했다.

우리는 마카로브 호텔 레스토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은 후 고 회장님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봉고차는 약속시간에 늦지 않도록 속도를 내어 달렸다. 브즈모리에에 다가가자 다시 바람이 불어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다.

무사히 한인문화센터에 도착, 한국대표단은 나머지 스케줄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침(1월 31일) 귀국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웨스토크-프로나이스크-마카로브-유즈노사할린스크 (취재: 배순신기자)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еминар «Чо Мёнхи и культурный Авангард российского Приморья»

25 ноября в 16:00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проше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еминар «Чо Мёнхи и культурный Авангард российского Приморья», посвященный литературе и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или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Институт культуры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джу, Фонд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еминаре должны были выступить участники – исследователи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Валентина Алексеевна Королева (к.и.н., доцент,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ВО РАН) с докладом «Корейский просветитель и деятель культуры Чо (Тё) Мёнх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1928-1938 гг.). Великая миссия и трагедия судьбы», Вадим Сергеевич Акуленко (старш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корееведения ВИ-ШРМИ ДВФУ,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ЦКИ ВИ-ШРМИ ДВФУ) с докладом «Проблема смешан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детей от смешанных браков корейце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ругих этносов г. Владивостока», Валерия Олеговна Курыжко (магистрант ДВФУ) с докладом «Идейно-тематическое содержание рассказа писателя Чо Мёнхи «Река Нактонган»». Однако из-за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разыгравшейся у нас метели – участники прилететь не смогли. Ведущий семинара кратко описал доклады отсутствующих участников и они были обсуждены приглашенными гостями.

Несмотря на не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опять же из-за погоды) на семинаре разгорелось оживленное обсуждение интересных тем. Сахалинский писатель Сергей Дмитриевич Ян поделился собственным видением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 отражением в ней особенностей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на острове. Высказывали свое мнение и гости – члены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конце семинара гости из Южной Кореи раздали участникам только что вышедшее издание – перевод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ниги российского писателя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Михаила Тимофеевича Пака «Мандарины для Хелен», а также пообещали, что уже летом этого год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ыйдет антология стихов и рассказов Сергея Яна, что, несомненно, будет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для сахалинского читателя.

ЮЛЯ ДИН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споминали основателя камерного оркестра Александра Зражаева

Прошёл уже 1 год, как не стало талантливого музыканта, человека, влюблённого в своё дело, дирижера, основателя Сахалинского детск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камерного оркестра Александра Гавриловича Зражаева.

Вечер, посвящённый памяти А. Зражаева, состоялся 29 января в Доме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и управление культур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городской камерный оркестр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Тиграна Ахназаряна.

И конечно, весь вечер был наполнен звучанием любимых классических музыкаль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которые исполнялись ранее оркестром и не успевшие осуществиться исполнение при жизни дирижера. Показано было много фотографий, звучали необыкновенно душевные стихи, написанные в его честь скрипачкой оркестра Галиной Савиной и прочитанные бывшим учащимся дет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ныне студентом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Валерием Кандаковым. Артист оркестра Александр Лопатин в своей речи поблагодарил ушедшего дирижера за то, что он разрешил оркестру исполнять его собственные сочинения. И в этот вечер впервые было исполнено его музыкальное сочинение "По ту сторону облаков", которое музыкант А. Лопатин написал через два дня после кончины дирижера.

Также было показано видеопослание от давнего друга, дирижера корейск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Ким Ден Дока, который на протяжении 12 лет был тесно связан с сахалинским оркестром. Корейский дирижер выразил соболезнование родственникам и всем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а с утратой великого человека, сожалел о том, что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не может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этом вечере и пожелал оркестру дальнейшег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и успехов.

В течение всей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и творческой жизни А. Зражаевым внесён неоценим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острова. Единственны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мерный оркестр горожане знают, любят, ценят, всегда ждут его концерты. Но сахалинский оркестр известен был не только на Сахалине,

но и за рубежом. Через пять лет после создания оркестра А. Зражаев планирует знакомить с музыкой русских классиков жителе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2004 году состоялась первая встреча русского дирижера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ществ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мена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осподина Ян Пен Су.

С той поры только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нашего Общества оркестр посетил Корею с гастролями 5 раз, состоялось 37 концертов в 18-ти различных городах и провинциях Кореи, выступ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ого оркестра состоялось даже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что является большой честью, - поделился корейский гость. — Корейцы поистине наслаждались прекрасной музыкой в исполн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артистов, а также узнавали много нового о Сахалине. Это большой успех в культурной дипломатии между Кореей и Сахалином, - подчеркнул профессор Ян Пен Су (Сеул). Он не мог не приехать на Вечер памяти друга, музыканта и дирижера А. Зражаева.

В воспоминаниях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русский дирижер предстает в образе всегда вежливого, галантного, тактичного, добродушного человека. И именно за эти качества Зражаева называли "лондонским джентльменом". Помимо музыкального таланта и прекрасной внешности, русский дирижер во время гастролей в Корею всегда с удивительной лёгкостью разрешал все проблемы. Будь это согласование программы концерта, размещение артистов на сцене, даже в выборе блюд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для артистов оркестра. Именно таким всегда его будет помнить Ян Пен Су.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корейский гость посетил могилу дирижера и там передал слова симпатии от друзей, поклонников и просто жителей Кореи, которые всегда с большим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сещали концер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оркестра в Корею.

Хочется надеяться, что светлая память о сахалинском музыканте и дирижере Александре Зражаеве всегда будет жить в сердцах сахалин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ценителей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ОЛЬГА РИ

МБУДО «Детская школа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Отдел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ОСТОЧНЫЙ НОВЫЙ ГОД  
«ОТ ТРАДИЦИЙ К СОВРЕМЕННОСТИ»

18 февраля 16-00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В программе:  
Ярмарка, игры, флеш-моб,  
конкурс талантов «Звездный час»

Вход свободный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по тел.:  
89625810180, 89147476575

реклама

## На выстав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едставили современное искусство КНДР

30 января в 17.30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очного проекта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На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специально прибыл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КНДР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Дё Сек Чоль. На посту генконсул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н около полугода, и это его первый визит на Сахалин.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гостей,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о немал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работающих на Сахалине, с открытием выставки поздравили также зам.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Николи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ладимир Носов, директор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Александр Бурыка. 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выставки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раздела коллекции «Искусство стран ДВ» Ольга Хай.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фотографии, книги, произведения живописи и вышивки, в которых прослеживаются многовековые традици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НДР. Всего представлено около 100 произведений, основу которых состави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вышивки, которая сегодня являетс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одолжением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промысла.

Современные вышивальницы, выпускницы Института вышивания (г.Пхеньян), демонстрируют незаурядное мастерство в искусстве «живописи иглой», - отметила Ольга Хай. Зрителя не оставит равнодушным и искусство аппликации ракушкой, перламутром.

С 1990 года это уже шестая выставка в рамках твор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музея и КНДР.

Проект организован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КНДР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украсил музыкальный номер на корейской дудке дансо в исполнении ученицы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узее, выставк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17 февраля.

Наш корр.

## 한국방문 체험수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한-사할린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문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할린 주민 누구나

**공모부문:** 한국방문 체험수기(글 종류 및 언어 무관)

**작품주제:** 모국방문(적십자사), 초

청검진(국립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동포재단 초청사업(한국어교사연수,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영비즈니스포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해 체험한 대한민국 방문 후기 및 소감

**공모기간:** 2018년 2월 9일까지 새고려신문사로 우편 및 메일 발송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최우수 1명-300달러, 우수-1명 200달러, 장려-2명 100달러) 수여 외 우수작은 새고려신문 게재 예정.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посетит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9-10 феврал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Синдзо Абэ посетит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9-10 февраля, сообщило японское агентство Киодо цусин, ссылаясь 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я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озможно, 10 февраля Синдзо Абэ побывает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хоккею среди женских команд. Японские хоккеистки встретятся с командой из Швеции. Сообщается, что Синдзо Абэ намерен встретиться с женской сборной Японии по хоккею и с конькобежцам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идёт обсуждение вопроса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встречи Синдзо Абэ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резидентом Мун Чжэ Ином перед церемонией открытия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ы.

## Посол России в РК: Олимпиада в Пхёнчхане поможет нормализации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лимпиада в Пхёнчхане поможет нормализации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ак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ТАСС,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о вторник посол Росс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лександр Тимонин на встрече с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онцерта, посвящённого начинающимся через 10 дней Играм. Он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Олимпиада в Пхёнчхане станет символом мира и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родвижению тех позитивных тенденций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которые наметились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а также решению острых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Российский посол пожелал южнокорейским спортсменам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и зрелищных побед». Он добавил, что решение МОК о выступлении команды России в нейтральном статусе «несправедливо по отношению к российским атлетам, потому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никогда не употребляли допинг». Тем не менее, росси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всё-таки приедут в Пхёнчхан, продемонстрируют своё высокое мастерство, силу и мощь российского спорта и сделают всё, чтобы достичь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и порадовать как наших болельщиков, так и тех в Корее, кто знает и уважает российский спорт», - подчеркнул российский посол.

## Север отменил совместное культур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29 январ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сообщила об отмене совместного с Югом культур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В письме из Пхеньяна об отмене культур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указано,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продолжают критику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том числе касаясь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нутри страны.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под внутренним мероприятием имеется в виду военный парад по случаю 69-ой годовщины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8 февра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ыразило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одностороннего решения Севера об отмене уже согласова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 ответном послании, направленном от имени министр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Чо Мён Гюна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согласованные решения должны выполняться на основе принципа взаимного уважения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 В Германии появится олимпийский поезд

В Германии появится поезд, который будет рекламировать предстоящую зимнюю Олимпиаду в Пхёнчхане и германскую олимпийскую сборную. 29 января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концерн Deutsche Bahn совместно с Олимпийской спортивной конфедерацией Германии запустил поезд 101-й серии, созданный в 1990-х годах.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известные личности, имеющие отношение к Олимпиаде, РК и концерну. Среди них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ермании Чон Бом Гу, руководитель пассажирской службы Deutsche Bahn Бертольд Хубер, член МОК – фехтовальщица Бритта Хайдеманн и другие. На чёрном корпусе поезда на немецком языке нанесена надпись "Вперёд, к золотым медалям!". Поезд будет курсировать по стране до 2020 года, когда в Токио пройдёт летняя Олимпиада.

## Фильм «Вместе с богами: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посмотрели более 14 млн человек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30 января новы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фильм «Вместе с богами: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посмотрели более 14 млн человек.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ся в Корейском комитете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Точ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14 млн 177 человек. Отметка достигнута за 42 дня проката. Это третий показатель сред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после картин "Битва при Мёнряне" - 17 млн 610 тыс. долларов и "Ода моему отцу" - 14 млн 260 тыс. человек, вышедших в 2014 году. (RKI)

## Санкции пока не оказали влияния на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Несмотря на заметное ужесточ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а также весьма жесткую позицию Китая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ситуаци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одолжает оставаться стабильной, а в стране заметны признаки продолж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источник, который недавно побывал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городе Синьичжу, расположенном на границе с Китаем. По словам специалиста, который посетил Синьичжу неделю назад, а до этого бывал в этом городе регулярно, налицо определенные признаки улучш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Учитывая введен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импорт в КНДР топлива, это выглядит парадоксально, но в Синьичжу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же 2016 или 2017 годами заметно увелич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такси. Не будет преувеличением сказать, что 60 процентов машин, которые я видел в городе, были именно такси. Год назад такси попадались редко", - сказал он.

По ег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НДР признают, что определенные проблемы с топливом есть, но не такие, чтобы оказать заметное влияние на движение транспорта. "Сами корейцы шутят, говоря, что сейчас в Синьичжу такси больше, чем людей. Судя по цвету автомобилей, в городе действует как минимум четыре-пять таксокомпаний. Есть не только легковые такси, но и микроавтобусы, которые можно взять в аренду. Некоторые такие автобусы ходят по заранее определенным маршрутам. Особенно много их было заметно в район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вокзала Синьичжу", - отметил он.

Город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по словам побывавшего в Синьичжу человека, улучшил свой внешний вид.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город радикально преобразился, но по-прежнему в нем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жилых зданий - это видно по появившимся домам высотой в 15-20 этажей. Год назад не была достроена гостиница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теперь она уже введена в строй. Укрепили русло реки, обустроили несколько зон для прогулок. Город стал опрятнее", - отметил он.

В отношении ситуации с электричеством, что является ахиллесовой пятой для экономики КНДР, он отметил, что проблемы существуют. "Зима в этом плане для КНДР в целом - самое сложное время года. Во время посещения одного из учреждений один раз были перебои с электричеством, выключился свет, что продлилось несколько секунд. В КНДР тоже уже давно не отрицают, то с электричеством есть проблемы. Но если брать тот же Синьичжу, то визуально в темное время суток он стал светлее, чем пару лет назад. В дневное время на улицах много народа, активно работает каток возле парка, где постоянно хватает людей, открыты магазины, ездят машины, автобусы. Нам показали несколько заводов и производств - они тоже работали. Насколько я могу судить, город живет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ью", - сказал он.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иньичжу находится в более выгодном положении, чем внутренние районы КНДР, так как через этот город проходит около 70 процентов всей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орейцы, конечно, беспокоятся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будет дальше, как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ся отношения с внешним миром. Они сами говорят, что во многих других районах страны ситуация с транспортом и тем же топливом заметно сложнее, но это не тот случай, чтобы говорить о каком-то кризисе.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признаков этого нет", - пояснил он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Отметим, что ранее некоторые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США, а ряд СМИ Южной Кореи заявили о том, что введенные санкции сильно ударили по экономике КНДР, приведя к проблемам с продовольствием, топливом и прочими товарами.

Специалист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цы прекрасно знают об ухудшении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КНДР и Китаем. "Для нас (в группе были китайцы - прим. "РГ") регулярно подчеркивали, что дружба между КНР и КНДР - крепка, что мы - братские народы. Но потом сами же корейцы отмечали: "Ну сами-то вы знаете, какие у нас отношения", - отметил он. Специалист добавил, что корейцы сильно недовольны тем, что Китай поддержал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анкции и сильно ограничил торговлю с КНДР. "В разговоре со мной они воздерживались от резких высказываний, но не скрывали, что им все это не нравится", - добавил собеседник.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Даньдун-Синьичжу)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 Российский дирижер возглавил оркестр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Ульсана

Известный российский дирижер, Народный артис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иколай Алексеев возглавил оркестр филармонии крупн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города Ульсан. Решение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мэром Ульсана Ким Ги Хёном.

Как сообщили местные СМИ, Николай Алексеев стал первым за всю историю существования оркестра Ульса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иностранцем, который возглавил коллектив.

Место дирижера оркестра оставалось вакантным более года. Отбор нов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производился 20 независимыми экспертами, комиссией из 46 человек, а также членами самого оркестра.

Николай Алексеев окончил ленинградское хоровое училище имени М.И.Глинки, затем Ленинградскую консерваторию как хоровой дирижер и оперно-симфонический дирижер.

В 2007 г. удостоен звания Народного артис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свою музыкальную карьеру возглавлял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Ульянов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1985-2001 гг.), был главным дирижером Эстон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2001-2010 гг.). Кроме того, с 2000 г. был одним из дирижеров Заслужен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России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в 2002-2003 гг. также был главным приглашенным дирижером Большого театр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Средний пенсионный возраст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ревысил 61 год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в 2017 году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минимальный пенсионный возраст, который составил 60 лет,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превысил 61 год.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изучения ситуации с возрастом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выполнении системы Salary Peak,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ей снижение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перед наступлением 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и системы оплаты труда.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61,1 года. В 2013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несло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 «О стимулировании занятости лиц прекл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чтобы обязать все предприятия повысить пенсионный возраст до 60 лет. С 2016 года новый рубеж 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д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частных компаний с числом работающих более трёхсот человек.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18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овал Год добровольца

Праздни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День Российского студенчества,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в Татьянин день 25 января, собрал в зрительном зале киноконцертного зала «Октябрь»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отни учащихся высших и средних специальны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области.

Исполнив древний студенческий гимн «Гаудеамус»,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дали старт Году добровольц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месте со всей страной островная молодежь включается в работу по развитию волонтерского движения, нацеленную на повышение престижа доброволь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расширение сферы их участия в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и. Напомним, Указ о проведен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ода добровольца (волонтера) в 2018 году подписа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это станет признанием заслуг перед обществом и оценкой колоссального вклада волонтеров в развитие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ым событие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ля островных волонтеров стал «Всемирный фестиваль молодежи и студентов-2017», состоявшийся в октябре в Сочи. Он собрал 25000 человек из 188 стран мира. В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и фестиваля участвовали 5000 волонтеров, в том числе и сахалинцы.

- Это была очень ответственная работа, - рассказал Павел Лёвочкин, участвовавший в работе службы аккредитации фестиваля. - К нам обращались тысячи людей из множества стран, которые говорили на разных языках. Гости молодежного форума приехали завязать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о своими иностранными сверстниками, обменяться идеями, найти точк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для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Во многом от нашей службы зависело, насколько успешным будет их участие в фестивале. Думаю, мы хорошо справились, потому что никаких заминок и сбоев не было.

Участие делегац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о Всемирном фестивале молодежи и студентов было очень успешным, отмет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масштаб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ав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шла в десятку лучших презентаций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3500 материалов с островного стенда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Что самое важное, сахалинцы вошли в список 500 лучших волонтеров мира. Это Алексей Ченских, специалист отдела проектов и программ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на Кузьмина и Мария Кузнецова, студент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авел Лёвочкин, член волонтерского корпус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Литвиненко,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ссии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и молодежном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у Молодежного парламен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ивш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изнание сахалинцы отмечены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которые вр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а Кожемяко.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уждается в добровольцах – умных, тактичных и доброжелательных людях, готовых оказать содействие окружающим,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 Помощи волонтеров всегда рады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 лучшем горнолыжном курорт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м комплексе «Горный воздух». Добровольцам найдется работа в августе 2018 года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на Сахалине финала V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зимних спортив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Для волонтеров участие в подоб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станет серьезной жизненной школой, полученный опыт позволит уверенно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в будущем. Поэтому смело шагайте вперед, ничего не бойтесь. Весь мир у вас на ладони, все дороги открыты!

## Глава «Опоры России» вступился за права сахалинских бизнесменов

Государство должно оградить от излишнег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давления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в непрост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ведут бизнес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Такое убеждение высказал прибывший в регион Президент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Опора России» Александр Калини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н провел двухчасовую встречу с бизнесменами, общественниками 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контрольно-надзорных органов.

Сегодня в стране, рассказал столичный гость, перематривается вся система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с бизнесом органов надзора и контроля. Такое поручение дано Президентом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Снижаетс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давление н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 количество их внеплановых проверок, активно внедряются электронные сервисы. Результатом должно стать повышение деловой активности и улучшени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Однако,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многие ведомств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тнеслись к этой работе формальн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давление на бизнес в макрорегионе, как показал Национальный рейтинг 2017 года, по-прежнему в 2,5 раза выше,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стране. 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оценк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даже ухудшился. Почти

четверть всех опрошенных компаний в регионе столкнулась с прессингом со стороны контрольно-надзорных органов.

Больше всего жалоб в адрес двух ведомств – налоговой службы и сахалинской полиции. Например, полицейские с 2012 года пытались неоднократно наказат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АО «Сахалинский хлебокомбинат» Владимира Боева. Ему вменялось хищение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 а по сути мусора, который образовался после ремонта прохудившихся крыш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Абсурдности ситуации добавило то, что Боев на тот момент был основным владельцем хлебокомбината и по логике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ей совершил кражу сам у себя. Только после вмешательства прокуратуры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было закрыто.

А вот у налоговой службы нашлись претензии к сахалинским строителя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мпания «Армсахстрой» допустила просрочку с выплатой налогов. Образовалась задолженность – 22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Большую часть суммы – 202 миллиона –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удалось оперативно погасить. Осталось внести в бюджет еще около 2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о контролирующие органы, не дожидаясь этого, возбудили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заблокировала счета компании и описала имущество на сумму более, чем в пол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 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едприятия сегодня парализована. Его внесли в реестр недобросовестных поставщиков. Почти 3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потеряли работу. Фискальные органы не дают реструктуризировать долг и ведут дело к банкротству. Почему у нас намеренно разоряются компании? – задался вопросом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трой» Валерий Мозолевский.

Еще одну ситуацию с неоднознач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сахалинской налоговой обрисовал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Козлов. Сложности возникли у якорного инвестора н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Курилы» на острове Шикотан. Компания создает на базе действующего рыбокомбината «Островной» современный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й комплекс, вкладывая в модернизацию 7 миллиардов соб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Еще два года назад «Островной» был на грани закрытия. Прежнее руководство скопило огромный долг перед банками – более 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овремя не выплачивалась зарплата работникам – об этом они рассказали Президенту в ходе Прямой линии.

Последовало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 – предприятие расчиталось с персоналом. А для его финансового оздоровления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привлекли инвестора. Однако сейчас бизнес-структура не может оформить землю под размещение но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з-за вмешательства налоговиков. Кроме того, ведомство неуклонно наращивает финансовые требования – если первоначально сумма ограничивалась 90 миллионами рублей, то теперь увеличилась до 300 миллионов. Такие действия уже вызывают сомнения у инвестора в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продолжени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 Нам что выгоднее обанкротить предприятие и за бесценок распродать его, полуразрушен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здания, если конечно на них найдется покупатель? А еще - потерять инвестора и получить армию безработных на далеком острове Шикотан? Или все же лучше создать современнейшее производство с сотнями рабочих мест и миллионами налогов? – вопрошал на состоявшейся встрече Максим Козлов.

Озабочен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действиями контрольно-надзорных органов разделил глава «Опоры России».

- Если так будем относиться к предприятиям в регионе, то кто вообще будет инвестировать в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Это абсолютно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одход. У нас цель одна – чтобы гражда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веренно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на этой земле, свободно занимались бизнесом, платили налоги и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И одних только усилий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ля решения задачи недостаточно. Со стороны ряда контрольно-надзорных органов сейчас все делает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против, обанкротить предприятия. Зачем эти бесконечные проверки с безумными штрафами? О каком благоприятном климате для деловых людей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На мой взгляд,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нужны кардинальные меры по снижению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давления на бизнес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частности. Эту позицию будем отстаивать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Контрольно-надзорные органы должны стать партнера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а не противниками. Их задача – помогать исправлять ошибки, которые есть всегда и в люб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а не препятствовать ее ведению.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бъявил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иоритетом. У территории огромный экспортный потенциал, который необходим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интересах всех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 сказал Александр Калинин.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ть площадку, на которой контрольные и надзорные органы,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подробно разбирались бы по каждому случаю давления на

бизнес,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региона Олег Кожемяко, который также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о встрече. - Очевидна избыточность многих требований. Считаю, что необходимо участие прокуратуры в контроле за надзо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органов федеральных ведомст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райне непросто заниматьс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м – условия значительно отличаются от тех, что сложились в регионах материковой части страны. Поэтому так важны каждая бизнес-структура и каждый ее работник.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мертность от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х заболеваний снизилась в два раза

Меры по популяризац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алкоголизму, табакокурению и наркомании обсудили на первом в этом году расширенном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во вступительном слове отметил, что работа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здор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много задач. Среди них немало важной является организация питания в школах.

- Этот вопрос должен быть постоянно на контроле в министерствах образован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Часть случаев желудочно-кишеч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связана с качеством питания в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25 лет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и школах наших детей кормили, как правило, блюдами не из местных свежих продуктов, а из завозных. Это, безусловно, отражалось на их здоровье. Ту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которую ведут региональ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необходимо доводить до логического завершения, строить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фабрики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и обеспечивать школы свежей продукци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уже есть определенные достижения. Кроме того, у нас ежегодно растет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занимающихся физ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Алексей Пак напомнил, что по данным ВОЗ, здоровье человека на 20% зависит от наследственности, на 20% – от состояни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на 10% – от уровня медицины и на 50% – от его образа жизни.

-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м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о охвачено 60%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жегодно в Центр здоровья обращаются около 17 тысяч островитян. С каждым годом отмечается рост числа пациентов, прошедших обучение в школах здоровья.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их количество увеличилось на 14%. В комплексе с другими медицинским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эти меры позволили снизить смертность от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х заболеваний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46%, - рассказал Алексей Пак.

Он сообщил, что в 2017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обращений за лечением от табачной зависимости увеличилось на 62%.

- В антитабачные кабинеты люди обращаются на добровольной основе с большим желанием бросить курить. В этой связи процент отказавшихся от этой пагубной привычки очень высокий – 90%,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По словам Алексея Пака, число пациентов с алкогольной и наркотической зависимостью, состоящих на учете в профильных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в 2017 году снизилось. Показатель по наркотической зависимост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 ниже среднего по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 Однако для более качественной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ой работы необходим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не только сред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но 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К сожалению, сегодня мы наблюдаем пассивность со стороны некоторых гла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в вопросах формирования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среди населе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едлагает включить в показател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райо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критерии: работу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алкоголизму, наркомании,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потребления табак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ВИЧ на территори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Считаю, что доля граждан, мотивированных на ведение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должна составлять не менее 50%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жителей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 заявил Алексей Пак.

Губернатор отметил, что сейчас при обращении человека в медучреждение врачи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ы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 его медикаментозном лечении и не уделяют внимания общему анализу состояния здоровья пациента. Он предложил региональному минздраву ввести в практику терапевтов подготовку программ физ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для каждого пациента и отслеживание ее выполнения.

- В некоторых районных поликлиниках такая форма работы уже существует, но нужно сделать ее системной. Разработайте такую программу, доведите ее до каждого врача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Надо донести до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что собственное здоровье – предмет личной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а физическая активность способна устранить многие проблемы в организме, - заключил Олег Кожемяко.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재일동포,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2억엔 기부 1월 24일(수), 올림픽조직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전달식 진행

1월 24일(수) 오후 16:30(선수단 결단식 15:00 직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조직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재일동포가 모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모은 성금 2억엔(한화 20억 상당)의 전달식이 열린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단장,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오공태 민단 단장은 "이번 기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바라는 재일동포들의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재일동포들의 모국 정부에 대한 기여(기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948년 런던올림픽 당시 모국 지원(일화 649,500엔, 현재 가치 한화 8억 5천만원)
- 1950년대 6.25전쟁 참전-장진호·백마고지 전투 등(642명 참전, 135명 전사 또는 실종)
- 1970년대 구로공단(현재의 '가산디지털단지') 조성 및 투자
- 1982년 신한은행(재일동포자본은행) 설립(납입 자본금 250억원)
- 일본주재 한국 공관 총 10개 중 대사관 포함 9개 부지/건물 기부
-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100억엔(당시 한화 541억 원) 기부



-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 외화 송금 운동(일화 780억 6천 3백만원)
- 2008년 승례문 복원 기금(한화 8억원)
- 2010년 천안함 폭침 유족돕기 성금(한화 1억 8천 2백만원)
- 2014년 세월호 유가족 위로 성금 기탁(한화 6억 4천만원) 등.

(재외동포재단 제공)

## 알립니다!

사할린주한인회는 2018년 2월 16일(금) 16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음력 설맞이 행사**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75세 이상의 1세 분들을 초청합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입장권은 2월 1일-2일 이틀간 한인문화센터에서 받아야 합니다.

문의전화: 42-40-87

조직위원회

##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입니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 남동구, 사할린 동포 어르신에 '아낌없는 지원' 약속

### 박순옥 한인회 회장 일행 구청 등 방문 노인복지관 지속적 교류 방안 논의

러시아 사할린 한인회 박순옥 회장 일행이 30일 인천 남동구청과 남동구 노인복지관 등 기관 방문을 통해 향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남동구 노인복지관은 지난해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와 문화 및 기관 교류를 위해 사할린에 있는 사할린한인회, 사할린노인회 등을 방문해 문화교류를 위한 협약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사할린 경로당 신동식 회장과 함께 남동구청을 방문해 구청장 면담, 남동구 노인복지관 소개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지속적인 기관 교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남동구 노인복지관은 사할린에서 아직까지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동포들의 건강을 위해 남동구 약사회로부터 구급 약품을 후원받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박순옥 회장은 "사할린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력해 주는 남동구 노인복지관에 감사하다"며 "사할린에는 아직까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인한 설움을 가진 한인들이 많이 남아 있어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남동구 노인복지관과 교류 협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남동구 노인복지관 김용배 관장은 "올해도 사할린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할린 동포 어르신과의 점진적인 문화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1월 31일호)

## [우리말로 깨닫다]

### 차라리의 세상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차라리>는 보통 뒤에 '~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식의 아쉬움이 함께 나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을 말할 때에, 저리 하는 것보다 이리하는 것이 나음을 이르는 말. 대비되는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마땅치 않을 때 상대적으로 나음을 나타냅니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 해라'라는 표현을 보면 이런 정의가 잘 다가오죠. 차라리의 의미는 보통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의 느낌입니다. 차선이나 차악의 느낌인 셈입니다.

차라리는 중세국어에서 해석이 '영(寧)'으로 나옵니다. 며칠 전 어휘사(語彙史)를 공부하다가 차라리의 원 의미가 편안하다는 뜻이었음을 보고, <차라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이 뜻대로 될 수는 없겠죠. 그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대의 마음이 편안해 질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하는 장면에서 '차라리'가 쓰이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라리가 쓰이는 장면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차선이든 차악이든 간에 억지로 마지못해 찾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떠밀려서 하게 된다면 행복할 수 없겠죠. 아니 오히려 반항 심리가 생길 겁니다. 원망과 분노가 가득해 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를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불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의 원 의미가 편안하다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고, 걱정이 담겨 있습니

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현 상황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마음은 원망보다는 아쉬움이 걱정일겁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표현은 차라리의 정수(精髓)를 보여줍니다. 이 표현은 주로 부모님이 쓰시는데 자식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답답하여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픈 것이 자식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편하겠다는 표현이죠. 이 말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자식의 아픔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라는 표현이 다른 사람을 향한 때도 유의해야 합니다. 보통은 차선이나 차악을 권유할 때 씁니다. 이것을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것을 하라는 명령이나 권유에 씁니다. 이때도 화를 내며 상대에게 이야기한다면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없겠죠.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듣는 이에게 맞는 일을, 상황을 알려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에게 어려운 이 일보다는 너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게 좋겠다는 진심이 필요한 겁니다. 차라리는 억지로 떠맡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위해서, 배려를 위해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차라리의 미학입니다.

차라리를 후회나 실망의 장면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단순히 후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를 통해서 용서하고, 차라리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 새 힘을 얻고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는 우리 모두 편안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남을 비꼬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저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장면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공감과 조화, 배려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차라리를 사용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원래의 어원을 잘 찾아서 사용한 겁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За время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битвы вермахт потерял четверть своих сил, сосредоточенных на Восточном фронте. Его потери убитыми, пропавшими без вести и ранеными составили около полутора миллионов солдат и офицеров.

## 유즈노사할린스크, 전 러시아 학생골프리그 경기 개최

1월 27일 전 러시아 학생골프리그의 일환으로 사할린국립대 공학기술전문학교 체육관에서 주네 참가 학생들은 4단계에 걸친 경기에 출전했다. 경기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아니와와 트로이츠크에 6개 학교에서 8세부터 11세까지 연령의 학생 40명이 참가했다.

경기는 다섯 단계로 이뤄진 가운데 특수 골프 채로 경기가 치러졌다.

남학생 개인경기에서는 막심 칼리에브가 우승했고 여학생으로는 야나 루슬라노와가 우승했다.

팀별 경기는 제4단계로 치러져 우승팀은 작년 경기에서 2위를 했던 동양김나지아(제9학교)팀이 1위로 금메달을, 전 경기에서 1위였던 제5학교(유즈노사할린스크) 팀은 2위로 은메달을, 3위로는 트로이츠크예촌 제5학교 팀이 동메달을 따냈다.

경기 주최 측은 우승자와 수상자들에게 우승 컵, 메달과 상장으로 시상했다고 시 스포츠·체육관리국 홍보실이 전했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водят соревнования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й школьной лиги гольфа

27 января в спортивном зале политехнического колледжа СахГУ прошел 4-й этап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гольфу среди учащихся школ региона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й школьной лиги гольфа.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40 школьник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8 до 11 лет из шести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Анивы и Троицкого.

Соревнования включали в себя пять этапов, выполнение которых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провести специальной клюшкой для гольфа (паттер).

Лучшим в личном зачете среди мальчиков стал Максим Калиев. Среди девочек победу праздновала Яна Сулова.

Победителем четвертого этапа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гольфу среди учащихся стала команда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школа №9), занявша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торую строчку турнирной таблицы. Бывшим лидерам турнира по гольфу — команде школы №5 — достались серебряные медали. Бронзу завоевала команда из школы №5 села Троицкого.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были отмечены кубками, медалями и грамотами от организаторов соревнований — управления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управления.

## <사할린 얼음> 축제까지 거의 한달 남아

3월 9일에 <사할린 얼음> 전통 아마추어 겨울 낚시축제가 개최된다. 대회는 7번째로 열리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돌린스크구역 나이바강에서 진행되며 두 그룹(팀경기과 낚시인 바이애슬론)으로 나뉘어 대회가 조성된다.

각 팀은 4명으로 구성되며 참가 희망자들은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팀 이름, 참가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팀선수권대회 참가 신청은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 전화 8(4242) 23-34-66로, 또는 메일 office@sktufar.ru로 접수해야 하며 대회 장소에 도착하는 팀과 참가자들은 심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수산청의 웹사이트는 전했다.

## До фестиваля "Сахалинский лёд" остается чуть больше месяца

9 марта состоится традиционный фестиваль зимней любительской рыбалки "Сахалинский лёд". Эти соревнования станут седьмыми по счету. Традиционно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йдут на реке Найбе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Они будут состоять из двух блоков — командные состязания и "рыбацкий биатлон".

Каждая команда будет состоять из 4 человек. Для участия необходимо заранее направить заявку и сообщить название команды, ФИО и даты рождения участников, место проживания, контактные телефоны.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командном первенстве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абочие дни с 9:00 до 17:00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23-34-66, а также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office@sktufar.ru.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на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команды и участники обязаны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в судейской коллегии,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워스토크 마을에 거주하시는 최연옥 씨께 드리는 축하문!

Милая мамочка!

Поздравляем с 70 летием! Не болей, радуй нас своей энергичностью и бодростью!

Твоей любви хватит на всех детей и внуков. Оставайся такой же доброй и заботливой.

Мы очень тебя любим и ценим. Спасибо за то, что ты у нас есть.

Будь здорова, мамочка. Счастлива, крепка и любима всеми нами.

С юбилеем!

Твои любимые дети 아들, 며느리, 딸, 손자.



이번 주에 신문사로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0년에 안산고향마을로 귀국하신 김영빈 선생님께서 중환으로 2018년 1월 28일 아침에 84세를 일기로 안산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955년에 신문사(당시 <조선노동자>)에 입사하신 김영빈 선생님은 거의 40년간 한편생을 한민족지에 바치셨습니다. <조선노동자>, <레닌의 길로>, <새고려신문>

- 신문사가 세 이름으로 바뀌기까지 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김영빈 선생님은 모국어, 러어, 한자, 일어에 능통하셨고 박식한 번역원이셨습니다. 신문사의 많은 사원들은 선생님한테서 우리말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말 신문발간, 한국어 유지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김영빈 선생님의 밝은 모습을 잊지 않겠습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은 비탄에 잠긴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고려신문사 현과 전 사원 일동



SAKH.COM БИЛЕТ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